

극단 예촌·동신대 등 협업
윤봉길 의사 순국 90주년
CJ 토월극장 21~24일 공연
김민호 교수, 학생 6명 참여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청년 윤봉길'의 출연진.

광주문화재단 '예술만렙' 진행

보조금 선정단체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술만렙'이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창작활동 보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4일간 '예술만렙'을 운영한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 만렙' 강좌를 필수로 1회 이상 수강을 권장하고 필수교육을 마친 단체는 모니터링 평가서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광주 여성여성회와 성평등교육원 박수경 원장과 광주시 민주인권과 차경희 여성인권보호관이 강사로 나서 예술인들의 성인지 감수성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 4개의 역량강화 강좌도 마련돼 있다. 먼저 '예술인 저작권법 알기(25일)'는 한양대 연극영화과 김준희 교수가, '세무·회계·정산 워크숍'(26일)은 한미회계법인 김소영 회계사가 설명한다. '사업계획서 레벨업'(27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종국 사무국장이 강연하며 '예술소비 트렌드와 흥보전략(28일)'은 큐브엔터테인먼트의 변정민 사외이사가 강연을 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년 윤봉길'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른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극단체가 서울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르기가 쉽지 않다. 수도권 예술가들의 전유물이자 꿈의 무대로 일컬어지는 서울 예술의 전당 무대에 광주 극단의 작품이 막을 올리게 돼 눈길을 끈다. 광주에서 활동 중인 극단 예촌의 연극 '청년 윤봉길'이 오는 21일부터 24일(21~22일 오후 2시, 7시30분·23일 오후 2시, 6시·24일 오후 3시) 서울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관객들을 찾아간다. 예술감독은 동신대 뮤지컬실용음악학과 김민호 교수가 맡았다.

작품은 1932년 4월 29일 오전 11시 40분이라는 역사적 시간을 주 모티브로 한다. 죽을 앞에 결연했던, 의지와 결기가 뜨거웠던 청년 윤봉길이 주인공이다. 나라 잃은 슬픔을 피 끓는 역사의식과 독립을 향한 불씨로 승화시켰던 청년 윤봉길의 삶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흥겨우 공원 거사의 진실은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조명한다.

'청년 윤봉길'은 지난 2020년 제38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통령상과 연출상을 받은 극단 예촌의 '역사의 제단'(위지훈 작)을 2년에 걸쳐 수정 보완한 작품이다. 예술감독을 맡은 김민호 교수가 각계 전문가, 학과 제자들과 의기투합해 근대 인물을 재조명했다. 문화 콘텐츠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 2년 만에 선보인 성과물로 그만큼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공연에는 예술감독을 맡은 김교수 외에도 이승원 외래교수가 연출을 맡았으며, 김정현 외래교수와 문창주(4학년) 등 재학생 6명이 출연한다. 윤봉길 역에는 김현진이 맡았으며 이밖에 방용원, 손인찬, 유미경, 고현지, 이다운, 조영길 등이 출연한다. 김민호 교수는 "예술의전당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콘텐츠 최초로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 중이다"며 "아울러 윤봉길 의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해 중국 상해에서도 연극을 선보일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러닝타임 80분.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생애주기별 핵심 5개 지역현안
광주여성가족재단, 21일 포럼

(재)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전일빌딩245 다목적실에서 '광주 인구정책, 성·재생산건강권에서 답을 찾다!'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재)광주여성가족재단과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포럼은 '광주지역 여성의 생애주기별·재생산건강권 현황'과 '청소년 성·재생산건강 실태'에 관한 전문가들의 기초발제로 시작한다. 이어 생애주기별 핵심 5개 지역현안인 ▲다문화 이주여성의 성·재생산건강 현황 ▲남성 생애주기별 성·재생산건강 ▲광주 청소년 성·재생산건강 지원 현황 ▲광주 여성의 성·재생산건강 보장 현안 ▲광주 모자보건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토론한다.

특히 이번 포럼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인권과 삶의 질의 중요한 가치로 보고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으로 정비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젊은 안무가 페스티벌' 2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젊은 안무가들의 화려한 몸짓.' 지역에서 활동중인 무용가들이 꾸미는 '2022 젊은 안무가 페스티벌'이 오는 23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선유라, 김은우, 홍동리 등 광주에서 활동 중인 젊은 안무가들이 누구나 쉽게 무용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은 차세대 무용수들을 위한 무대로, 솔로 무대와 유쾌한 재미를 담은 트리오 무대를

비롯해 지난 5월, 제 31회 전국무용제 시 예선 광주무용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 '인테그랄(integral·사진)'과 '존재의 시간', '한삼 속 이야기', 'RE(=again)', '에너그램: other space', '흘러가는대로' 등 6개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의 '빛고을시민문화관과 함께하는 공연 나눔' 사업 여섯 번째 무대다. 전석 무료. 문의 062-670-7923.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받는 미술시장 '아트광주22' 열려요"

10월6~9일 DJ센터...국내외 갤러리·기획전 등 106개 부스 프리뷰·강좌 등 사전행사, 21~27일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미술생태계를 지원하는 사랑받는 미술시장'. 올해로 제13회째를 맞는 광주아트페어(이하 '아트광주22')의 주제가.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광주광역시지회의 아트광주22 사무국이 주관한다. 지역과 국내외 유명 갤러리 적극 유치, 적극적인 신진작가 발굴,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한 고품격 아트페어를 지향한다. 본전시를 구성하는 105개 부스는 국내외 갤러리 90개와 아트광주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작가 기획전 부스 15개로 이루어진다. 모두 80개의 국내 갤러리와 10개의 국외 갤러리가 선정됐다. 서울의 갤러리 조선, 동송갤러리, 지역의 갤러리 자리아트 등이 참여해 미술애호가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작가 기획전 부스에 참여하게 될 작가로는 총 80명이 선정됐다. 작가 기획전 부스는 국내외 갤러리와 연계하지 않는 지역작가를 위한 것으로 전통과 현대성을 겸비한 지역작가들로 구성된 주제별 다채로운 기획전을 진행한다. 아트컬렉터, 갤러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창작 역량을 강

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월 초 본행사에 앞서 프리뷰, 프레퍼어, 문화강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NFT 관련 설명회가 있었으며, 향후 '아트광주22' 일정에 맞추어 작가 기획전 부스 참여작가들을 위한 아트페어 사전행사를 프리뷰 형태로 네 차례 진행한다. 1차 프리뷰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동구 금남로 231, 2층)에서 열린다. 21일 오후 3시부터 프리오픈으로 시민들은 무료로 개방된 전시장에서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미리 만나보고 구매 또한 할 수 있다. 1차 프리뷰에는 김기현, 문구, 변재현, 송필용, 오창록, 위진수, 장연희, 정순아, 정정임 그리고 조문현 등 10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아트광주22에서 새롭게 주목할 부분은 해외 갤러리와 교류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외 갤러리 중에서 교류 협력을 맺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의 갤러리 3곳과 아시아의 갤러리 3곳에서 각각 아트광주 사무국에 전시 공간을 제공한다. 이번 아트페어22를 기점으로 5년 미만 신생 갤러리를 지원하는 방침이 새로 생긴 점도 눈에



지난해 10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트광주 21'. <광주일보DB>

된다. 향후 5년간 5년 미만의 신생 갤러리에는 아트페어 참가 부스비의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문화 메세나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업, 공공기관, 전문컬렉터의 상호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전

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아트마켓 전시, 메타버스 전시 그리고 NFT 미술작품 판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062-223-202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양승화 소리한마당

24일 순천 한옥글방



양승화의 소리 한마당 공연이 오는 24일 오후 4시 순천 한옥글방에서 열린다.

'매미 질러대다 진주의 이야기들-'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소리꾼 양승화(사진)의 판소리 공연이 펼쳐진다.

양승화는 남도민요 경창대회 대상, 농화전국 국악대회 명창주 우수상, 진주 개천대회 성악부 금상을 수상한 소리꾼으로, 순천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공연에는 판소리 공연 전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송수권시문학상 젊은 시인상을 수상하고 영정인문학예술연구소 소장인 시인 석연경이 심청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고수에는 1999년 고법 신인부 대상, 2001년 고법 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한 지순구가 함께한다.

기획·사회 박희연, 영상촬영 임채성, 연출 강수화가 함께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